

문화



# 예술 꿈나무들 숨은 기량 맘껏 발휘하세요

## '57회 호남예술제' 25일~5월 24일

음악·국악·미술·작문 경연... 실용음악·만화 눈길

6월엔 미취학 아동 대상 '새싹 그리기 축제'

호남예술제 출신 수상자들 아티스트·교육자로 활약

이달 초 반가운 메일이 날아왔다. 광주 출신 테너 김기찬(36)씨가 2012~2013년 시즌부터 독일 카이저스라우엔 오페라 주립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2005년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가수를 시작으로 독일 브레머 하펜 시립극장 활동 당시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로 뽑혀 '관객상'을 수상했던 김씨는 제6회 독일 파사우극성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광주예술고 재학 당시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김씨는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인물 중 한명이다.

57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열린다.

무용 부문 경연으로 첫 시작을 알리는 호남예술제는 5월 24일 우치동물원에서 열리는 미술·작문 경연까지 예술 꿈나무들이 다양한 경연을 펼친다.

경연 분야는 음악·국악·미술·작문 등이며 지난해 신설한 실용음악(개인)과 만화·일러스트(중·고등부) 부문도 눈길을 끈다. 6월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새싹 그리기 축제'도 마련된다.

각 부문 최고상 가운데 국회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선정,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지난 1955년부터 개최

하기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의 꿈을 키워준 터밭이었다. 지금까지 참여인원만 56만여명에 이르고,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교육자로, 아티스트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음악 분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씨를 비롯해 김해경·서영화(조선대), 박미애(광주대), 강숙자·정애련(전남대), 조수현(광신대)씨 등 각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 출신들이 눈에 띈다.

무용 부문에서는 박준희·임지형·김미숙 일러스트(중·고등부) 부문도 눈길을 끈다. 6월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새싹 그리기 축제'도 마련된다.

최근에는 젊은 예술인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화장초 동아여중, 수피아여고 재학생이기에 모두 발레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발레리나

문성원씨는 국립발레단을 거쳐 국내 무용수로는 처음으로 포르투갈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클래식 분야의 활동은 활발하다. 최고상을 4회 수상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 올 3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실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울리스트 김유영, 2008 톤티보 콩쿠르 1위 수상자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베를린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피아니스트 최현호, 에피탈 콩쿠르 우승자 임호열, 빈 국립 음악 대학 지휘과에 광주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 입학한 첼리스트 박승유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예술제의 부문별 입상자는 경연 당일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ju.co.kr)와 다음날 광주일보 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표류하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친구, 혹은 동료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지난 삶을 되돌아 볼 시기가 되면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란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영화 '인터처블 1%의 우정'은 쉽게 맺어지고 끊어지는 '친구'라는 이름의 관계에 대한 반추이자, 진정한 우정과 소품에 관한 고찰이다.

소득기준 상위 1%의 전신마비 백만장자와 무일푼 혹은 부랑자가 친구가 된다는 이 영화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화다. 샴페인 회사 사장이 필립 포즈 디 보르그와 아랍인 청년 에브델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다. 필립(프랑스와 클루제)은 페르글라이

작, '왕범의 비행' 등 아예 한 장의 클래식 음니버스 앨범이 통째로 소개된다. 드리스의 반응은 더욱 즐겁다. 광고음악, 톱과 제리 만화음악 등으로 사용된 트랙들의 쓰임새를 밝혀내는 코믹한 장면. 결국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개화하거나 내 안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출발임을 일깨우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두 번에 걸쳐 사용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너무나도 친숙한 클래식 음악이자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선율 가운데 하나이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베니스 악파를 이끌었던 비발디의 모든 재능이 응축된 걸작이자 대표작. 비발디 '사계'로 전 세계에서 가

#### '인터처블 1%의 우정' 중 비발디 '사계'

## 진정한 우정은 어디 있는가

딩을 하다 추락해 사지 전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백만장자, 드리스(오마 샤이)는 빈민가 출신의 전과자이다.

간병인과 환자로 만난 두 사람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는 '장애'를 이야기의 소재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랄하지 않고 유쾌하고 즐겁게 극을 진행시켜 간다.

이 영화에는 상당히 많은 재즈, 팝, 클래식 명곡들이 등장한다. 특히 음악 취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교감하는 장면은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드리스에게 클래식 음악의 감동과 고요함을 알려주고 싶은 필립은 파티 중 악단에 부탁하여 쉽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드리스에게 들려준다.

이 시퀀스에서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하여 바흐 '프렐류드', '시바여왕의 도

장 많은 음반을 팔았던 연주단체는 바로 이 무지치이다. 사계가 끝이 무지치였으며, 이 무지치 하면 세계였다. 이들은 가장 규범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최근에는 이 협주곡에 대해 다소 과격적인 해석을 가하는 연주가 유행하는 추세다. 안네 소피 무터가 소규모 악단을 직접 이끌고 녹음한 도치그라모폰 음반은 테스트 트랙에 올라선 F1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듯한 폭풍의 질주같은 연주를 들려준다. 아예 곡 자체에 자의적인 해석을 더하여 마치 록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과격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나이젤 케네디의 EMI 음반도 재미있다.

하지만 최고의 앨범은 따로 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필리아노 카르미놀라의 디스크 음반. 이 무지치의 정통성과 무터의 과격이 공존하는 듯한, 영화 속 필립의 고고한 취향과 드리스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함께 살아숨쉬는 것 같은 절묘한 화합점을 찾아낸, 우리 시대 최고의 비발디 연주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 오방색으로 물들인 전통 한지, 福을 만드다

서양화가 우제길 개인전, 30일까지 신세계갤러리

다양한 빛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은 중진 서양화가 우제길 화백이 30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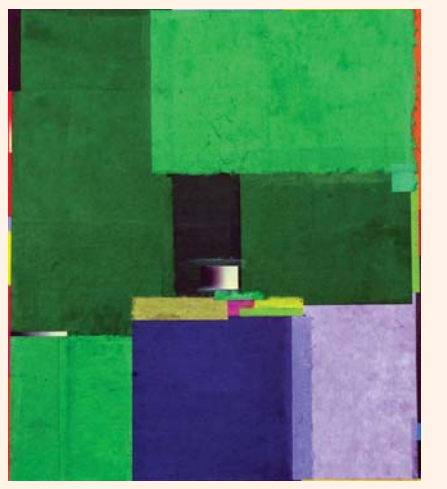
50년 넘게 화두로 삼아온 빛(Light)을 주제로 했지만 아크릴·오일에 그라데이션을 활용한 기존 작품 대신, 전통 한지와 오방색을 이용한 콜라주 작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을 아는 관객들에게 과격적인 변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방색으로 福을 만드다'는 주제로, 전통 한지에 천연 염료를 가미해 만든 오방색 한지를 활용한 콜라주 작품 30여점이 선을 보인다.

전통 한지의 숨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작업한 작품에서는 캔버스 작업과는 차별화된 따뜻함이 감지된다. 칼이 아닌, 물에 적서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한 탓에 한지의 보풀과 촉감도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우씨 작품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언어인 직선은 이번 전시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반면, 강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직선이 한지와 만나면서 부드러운 면에서 정갈하게 다가오는 점은 사뭇 다르다. 70평형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의 노련함과 한국적 정서도 엿볼 수 있다.

우씨는 이번 전시 기간 중 빈곤과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희망)의 광고나루와 손잡고 그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



'Light 2012-A-121'

인 상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62-360-163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U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light deals, and special offers for different reg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Australia.